

가정예배지는 성문교회 홈페이지의
거룩한 문 소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lygatechurch.org

셋째로, 복 있는 자는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즉,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이 생의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다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구원받고 자녀 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가족들도 영혼의 형통을 목적으로 삼고 은혜의 주역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평생 누리는 복 있는 자로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합심기도문

- 1 분별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지혜로운 가정으로 살게 하소서.
- 2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 3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통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QR코드 사용법

- 01 QR코드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다음, 네이버)
- 02 QR코드 어플 설치 후, 검색에 있는 카메라 스캔 기능을 실행시켜 주세요.
- 03 설날 가정예배지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고동훈 담임목사(성문교회)의 설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고 동 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4길 9



2021

설날
가정예배지



2021 가정에배순서

목 도 다같이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 도 인도자(가족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이 없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날 때에도 간증과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1~3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나눔

인도자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생의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복을 베푸는 곳에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성경 안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때 더욱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하고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식을 시작할 때에 먼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멀리하고 다음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로, 복 있는 자는 꾀와 길과 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과 더 편한 방법을 알려주며 '악한 꾀'를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선한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라면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연약한 우리에게 인생의 아골 골짜기가 닥쳐오면 모면하기 위해 죄인의 길의 서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상황보다 부모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주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해결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다 '내가' 강조되는 오만 곧 교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진정한 인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오만한 자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율법하면 십계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용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중 명령문으로 쓰인 십계명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서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게 사랑으로 당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며 삶에 결단으로 이끌어 갑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